

담당부서	공보관	담당자	강순익 사무관	연락처	055-211-2052
------	-----	-----	---------	-----	--------------

김경수 도지사 “제주 차귀도 해역 선박사고, 실종자 수색 총력대응”

- 경남도, 사고 직후 긴급 대책회의 및 통영시와 영상회의 개최
- 도·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제주 현장사고대책본부에 인력 급파
- 김 지사 “가능한 자원 총동원, 실종자 가족 심리적 안정 및 수색상황 공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아침 발생한 ‘제주 차귀도 해역 선박사고’와 관련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19일 오전 7시 9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통영선적 연승어선 D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고해역에 경비함정 7척과 헬기 4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실종 선원 12명 중 1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뒤 오전 10시경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으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받은 김 지사는 “실종자 구조 위한 수색이 급선무인 만큼 인력과 장비 등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고, 실종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수색상황에 대한 즉각적 공유”를 지시했다.

또한 소방본부장에게 “실종자 수색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은 물론 각종 지원 대책을 주문하고, 해경청장에게 언제든 지원 가능함을 미리 알리라”고 전했다.

회의 종료 후 김 지사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조현배 해양경

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자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와 통영시는 상황 접수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제주 현장 사고대책본부에 도청 소속 직원 2명 등 6명을 급파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보도지원담당 강순익 사무관(055-211-2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